

高齡化社會의 住居環境 計劃方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Planning Direction of Living Environment for the Aged

許 炳 珪*
Heo, Byung-lee

Abstract

Personalities, human relations, living patterns, and so on of the aged have been moulded respectively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ir present situation of health, family make-up, economic condition etc. are different individually.

Various characteristics -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culiarities - of the aged are analyzed and studied in preceding paper to grope planning factors of architectural spaces by referring to sundry records from many branch - gerontology, medical science, psychology, sociology, etc. - of knowledge in a position of architectural planning.

So, in this paper, the directions of planning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aged are studied on the base of those planning factors of architectural spaces. there are room(X_1), unit home(X_2), public housing(X_3), residential district(X_4) as dwelling spaces for the aged in X axis and safety(Y_1), hygiene(Y_2), convenience(Y_3), comfortableness(Y_4), psychology(Y_5), aesthetics(Y_6), society(Y_7), economy(Y_8) as the terms desired to spaces in Y axis. And the directions of planning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are studied by discussing mutual matters relevant to the subject on the cells of matrix formed by X, Y axis.

In planning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their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thoroughly and many types of dwelling spaces should be built. Then they can take up their abode to suit their conditions easily.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일반적으로 65세이상 人口의 비율이 전체인

구의 7%를 넘어선 사회를 “高齡化 社會”라고 하며,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최근 발표된 人口 센서스 結果¹⁾ 에서 나타난 한국 人口構造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 현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平均壽命은 1970년에는 63.2세이고, 1980년에는 65.8세이던

* 市立仁川專門大學 建築科 教授, 工學博士

것이 1995년 現在에는 73.5세(남자 69.6세, 여자 77.4세)로 크게 增加하였으며, 2,005년에는 76.1세로, 2,020년에는 78.1세로 계속 높아질 展望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老齡人口 비율이 1995년에는 총인구 4,509만 3천명 중 5.9%인 265만 7천명으로 나타 났는데, 2,000년에는 그 比率이 7.1%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3년 뒤에는 본격적인 高齡化 사회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10년이면 老齡人口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10%인 5백만명을 넘게되고, 2,022년에는 14.3%²⁾에 달하게 되어 결국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高齡社會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工業化 정책을 추진하여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産業社會로 전환되면서 제반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老人問題가 대두되었는 바 이에 대한 對策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향후에도 醫學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高齡化 사회를 초래하게 되고 노인문제도 더욱 深化시킬 것이므로 그 對策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産業化,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大家族 제도가 붕괴되고 부부중심의 核家族 제도로 변화되면서 노인의 家父長的 지위와 권위는 상실되었으며 또한, 젊은 世代의 노인에 대한 扶養意識의 약화³⁾ 및 도시의 주택부족 현상으로 인한 住居의 고층·집단화 現象은 전통적인 주거에서의 生活方式를 크게 변모시켜 도시노인이 日常生活를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加重시키고 있다.

노인들은 一般成人과 관련시켜 볼때 諸能力 수준이 점차 저하되므로 그들의 行動은 환경조건에 의해 증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正常人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物理的 환경도 적응능력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무리한 일⁴⁾이 되기도 하며, 또한 “노인들은 그들의 諸機能과 육체적인 능력을 점차 상실함

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게 되어 不滿感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불편함은 그들의 住居條件이 주거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發生되는 일반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보다는 그들의 生理的인 기능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住居에 대한 불편함이다.”⁵⁾ 이에, 本 研究에서는 머지않아 도래할 高齡化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諸特性이 고려되고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住居環境⁶⁾을 계획하기 위한 方案을 모색하고, 그 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人間은 주어진 環境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끊임없이 환경과 서로 影響을 주고 받는 상호 交互作用을 하면서 존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인간은 자기의 생물학적,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要求를 환경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⁷⁾

즉, 建築空間을 포함한 인위적 환경은 인간이 創出해 낸 것이지만 동시에 環境은 인간의 행위 및 활동 그리고 意識構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적 關係에 있으므로 환경은 단순한 인간활동의 場 이상의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老人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安樂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所得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保護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欲求이다⁸⁾ 고 하였듯이 노인이 되면 생물학적 老化로 인하여 신체의 諸機能이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므로 老後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住宅이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先行研究⁹⁾에서 노인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老年學,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분야로부터 문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얻은 주거환경 計劃因子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을 위한 住居空間으로서 노인실, 단위주호, 거주동, 근린·지역사회를 X軸에 두고, 공간에 대한 要求

性能으로서 안전성, 위생성, 편리성, 쾌적성, 심리성, 미성, 사회성, 경제성 등을 Y軸에 두어 MATRIX 化하여 상호관계되는 事項을 논의함으로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住居環境의 계획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住居類型은 매우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老人世帶用 주택 및 주거단지에 主眼을 두되,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종합화하여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는 普遍的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서 가능한 여러 類型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空間을 계획하기보다는 노인의 제특성에 따른 노인 주거 計劃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II. 老人住居環境의 計劃 方向 고찰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1차적인 공간인 住居는 인간의 주생활을 수용하는 곳으로서 가장 중요한 要素 중의 하나이다. 住生活은 주거안에서 이루어 지는 물리적·생리적 行動 및 사회적·경제적 活動, 그리고 정신적·심리적 行爲등 모든 것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住居內에서 인간의 의식적·무

의식적 활동이나 행위가 이루어 지고 그 속에서 각자의 주생활 規範과 인격이 형성되게 되며, 인간의 주생활 樣式은 시간과 공간의 存在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人間이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내외적 조건인 住居環境은 개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을 受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기대, 행동과 태도의 형성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生の 만족이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인식상으로 評價하는 것으로 생활만족도는 老年學에서 노년기에의 적응, 성공적인 老化 및 정신건강의 指標로서 간주되어 왔다. Schooler(1980)는 住居 및 물리적인 환경의 효과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影響을 준다¹¹⁾고 하였다.

어떤 주어진 생활조건에 대한 適合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環境의 물리적 특성, 노인 개인의 육체적 또는 個性의 차이, 노인 개개인에게 쓰여질 수 있는 개별적 支持體系나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¹²⁾ 노인의 情緒와 주거에 대한 의식구조 및 生活樣式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그들의 住居와 함께 생활해 오는 동안 形成되었기 때문이다.

<表 1> 노인의 安全·衛生성과 공간계획 方向

區分	老人室	單位住戶	居住棟	近隣, 地域社會
安全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非常벨·인터폰 설치 ○피난경로 고려 ○附屬 발코니 난간 설치 ○문지방 段差제거(낮춤) ○레버식 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구조의 단순화 ○顛倒·미끄러짐 방지 (특히, 浴室·화장실) ○양변기·안전손잡이 ○변소, 욕실문 밖여닫이(특수자물쇠) ○溫水 43°C 이하 유지 ○불연성 재료사용 ○방법·방화 대책 ○階段: 단높이 15-16cm, 단너비 30-32cm ○단차, 凹凸, 활면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서리 둥글게 처리 ○墜落·충돌방지 ○피난경로·설비, 대피장소 ○안전한 構造體 ○방법설비 System ○비상경보·소화System ○耐震·내풍·내화구조 ○통로·계단양측 핸드 레일, 눈슬림 설치 ○가능한 Ramp(EV)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시 안전성 확보 (步車분리, 단차제거) ○낙하물 방지대책 ○Sign board(안내표식)의 明瞭性 ○기타 안전사고 방지 ○급경사·모서리·突出部·단차해소 ○보도난간 설치 ○Barrier free 設計
衛生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日照(채광) 확보 ○원활한 通風(환기) 배려 ○선릉機能(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동 ○換氣具(주방·화장실 등) ○방충·防鼠·방습 ○청결성 재료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방위(일조·통풍) ○쓰레기 처리문제 ○공동세탁·건조장 고려 ○隣棟間隔(일조·통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의료시설 ○再活·요양시설 ○기타 건강증진 方案

노인주거는 노인생활의 場이며, 거주자의 생활을 충실하게 해주는 곳이므로 노인들의 정신적·육체적 諸機能의 변화와 쇠퇴라는 변화현상을 고찰하고 종합하여 노년층의 심신적 능력과 제요구에 부합되는 住居를 개발해야 한다¹³⁾. 그러므로서 노인들이 그들의 老後生活을 보람있고, 만족스럽게 영위하며 남은 餘生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1. 安全·衛生성과 空間計劃

노인은 나이가 들어 가면서 계단의 승강, 入浴등의 일상생활에서 조차도 기능저하가 생긴다. 이에 대해 일반주택은 설계나 설비 등에 있어서 충분한 對應이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높은 地價 때문에 효율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상태가 많이 존재하고 주택 내에서의 事故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생리적 기능이 退化되거나 점차 쇠퇴해 가는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시 안전성 및 위생성이 重要하다고 하겠다.

老人室은 하루 일과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場이다. 노인이 거처하는 주요실에는 安全性에 대비하여 비상시 관리실 등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및 인터폰이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등의 災害에 대비한 피난 경로 및 부속 발코니의 설치를 고려한다. 그리고 노인이 顛倒되지 않도록 문지방을 없애거나 낮추며 손잡이는 레버식이 바람직하다.

單位住戶의 내부형태 및 구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單純化하고 물을 사용하는 욕실 및 화장실의 바닥은 耐水性이 있으면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며 욕조, 변기 주위에는 안전손잡이의 설치를 고려한다. 화장실 및 욕실의 門은 비상시 밖에서 열 수 있는 구조 및 잠금장치가 요구되고, 사용하는

<表 2> 노인의 便利·快適성과 空間계획 方向

區分	老人室	單位住戶	居住棟	近隣, 地域社會
便 利 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욕실 隣接 발코니(테라스)설치 소지품 수납공간 문지방 제거(낮춤) 房門幅(휠체어 출입 : 110cm이상) 직접 옥외출입 고려 문, 창 개폐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eel chair·보행보조기 사용고려 動線短縮·실구성 가변적 구조 고려 인체척도와 值數(일반보다 낮게) 각 空間 설비·가구·선반·스위치높이 등 韓·洋式 생활질층 레버식수도, 가스꼭지 충분한 수납공간 실별 機能의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住戶와 공용시설과의 距離(동선) Ramp(EV.) 설치 휠체어·步行 보조기 사용 건물층수(低層化) 거주층수 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보권내 각종시설 배치(편의시설) 移動性(교통)보장 접근성(거리)배려 便益·공공·교통시설 휴식·체육·교육시설 노인용 스트리트 퍼니취(벤취 등) 산책로·파고라·연못·약수터·팔각정 등 시설 시설내 給食 기능
快 適 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室의 적정규모·形 판넬히팅(온돌)고려(補助 난방기 설치) 차음·단열양호 채색(밝은 난색계) 眺望배려(창문大·창대 낮춤) 충분한 照度(150lx 이상), 현회 방지 적정 온습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실의 적정규모·형 적정 溫度 및 濕度 유지 左 同 각실별 적정 彩色 각실간 溫度差 감소 실별 적정조도(현회, 음영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부분 적정면적 배분 冷暖房·공기조화 설비 환기·배기설비 騾音·매연등 公害 감소 공용부분의 적정조도(현회, 음영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open space 녹지·空地 확보 물리적 쾌적감 開放感 유지 자연조건과의 親和性 좌 동

溫水는 그 온도를 火傷을 입지않도록 낮춘다. 또한, 不燃性 재료를 사용하여 방화에 대비하고, 도난등에 대한 防犯에도 유의한다. 階段은 일반의 경우보다 단높이를 낮추고 단너비는 더 넓게하여¹⁵⁾ 안전하게 하고, 바닥면은 凹凸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되 滑面을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딪쳐도 危險하지 않도록 한다.

居住棟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계단등에서의 추락 및 충돌의 事故가 없도록 하며, 화재등 비상시를 대비한 避難 및 대피장소와 비상경보·방법·방화 System이 완벽해야 한다. 통로·계단에는 핸드레일 및 논슬립을 설치하고 계단보다는 가능한 傾斜路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린 및 지역 사회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步道와 차도의 분리, 보도의 단차·급경사·滑面 제거등 노인의 이동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낙하물 방지, 안내표식(Sign Board)의 明瞭性, 보도의 난간설치 등의 Barrier Free 設計가 요구된다.

한편, 衛生성에 있어서 하루 일과중 많은 시간을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老人에게는 노인실은 물론 단위주호내 대부분의 공간에 日照 및 통풍이 원활하여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선룸 역할의 리빙 발코니 또는 테라스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방·화장실 등에 환기구 設置 및 청결성 재료 사용과 방충·防鼠·방습 등의 구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거주동과 近隣 및 지역사회의 경우 인동간격 및 건물의 方位에 따른 일조 및 통풍 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공동세탁·건조장, 간호·의료시설, 재활·요양시설, 기타 健康을 증진할 각종 시설의 설치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便利·快適性和 空間計劃

신체기능의 저하를 補完할 수 있는 주거계

획은 노년기의 안전하고 일상생활의 自立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維持하고 싶은 노인의 생활욕구를 채워주는 이상적인 住居의 필요 조건이다.¹⁶⁾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은 일상생활시 노인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餘生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노인실과 화장실, 거실, 발코니(또는 테라스) 등의 공간을 인접시켜 動線을 짧게 해주거나 1층의 경우 직접 옥외 出入을 고려한다. 收納空間을 적절히 확보하여 소지품을 용이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방문과 창문의 개폐가 용이하게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해서는 공간 상호간에 段差를 없게하고 문폭을 넓게 하며, 단위주호의 가족구성에 따른 가변적 空間, 공간내 각종설비 및 가구(선반등)·도구(스위치 등)의 노인의 人體尺度에 부합되는 치수와 사용성이 편리한 레버식 수도·개스꼭지의 채택, 한·양식 생활의 절충 및 실별 기능의 最適化 등으로 주거내부 공간의 편리성이 요구된다.

居住棟에 있어서는 공용시설과의 짧은 동선, 경사로·승강기 등의 수직교통, 건물의 底層化, 노인의 건강에 따른 거주층수 안배등과 근린·지역사회에 있어서는 도보권내에 노인의 이용시설 배치와 移動性(교통), 각종 편의·공공·휴식·체육·교육등의 시설과의 接近性(거리) 및 노인용 벤치등 스트리트 퍼니처, 팔각정, 파고라, 산책로, 연못, 약수터 등의 시설의 이용을 배려한다.

한편, 快適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실 및 단위주호의 경우 室의 적절한 규모 및 形, 적정온도 및 습도 유지, 온돌효과와 판넬히팅 및 보조난방기 설치, 적절한 차음 및 斷熱, 각실간 온도차 감소, 밝은 난색계의 색채, 창문을 크게 하고 窓臺를 낮추어 양호한 眺望, 충분한 조도유지 및 현회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

거주동 및 근린·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공용부분의 적정면적, 냉난방·공기조화 설비 및 환기·배기설비의 확보, 騒音·매연등의 공해감소, 적정조도의 유지등이 요구되며, 주변의 Open space·녹지·空地 등의 확보로 인한 물리적 쾌적감, 개방감, 자연과의 親和性 유지등이 필요하다.

3. 心理·美性和 空間計劃

노인을 위한 住居計劃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특별한 要求에 부응하고 삶의 방식을 維持시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⁷⁾ 노인의 心理的 상태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각자 매우 多樣하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노인실 및 단위주호 내에서의 심리적 特性에 따른 건축계획적 배려로서 가족구성원 및 同室 사용자간의 프라이버시, 과거의 생활방식에 대한 고려, 심리적 안정감 유지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방감 확보, 개인적 領域性 및 취미생활 유지를 위한 공간 등이 필요하며, 이웃과의 프라이버시 유지 및 교류촉진, 화초재배 등의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배려, 자녀와 同居하는 경우에는 자녀

생활공간과의 적절한 분리, 가족적 분위기 조성등의 배려가 요구된다. 거주동 및 근린·지역사회에서는 인동간격의 적절한 유지로 시선차단 등의 프라이버시 확보, 隣居 및 近居 자녀와 이웃은 물론 단지내 주민간의 교류촉진, 공간내 私的·반공적·공적의 영역성 확보, 靜的(소극적)·동적(적극적) 공간 성격 구분,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등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美感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실 및 단위주호내의 벽지·마감재·가구 등은 온화한 色感, 한지·장판지등의 전통적 재질감, 고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한국 고유의 文樣 등과 콘크리트, 철, 플라스틱 등의 재료보다는 목재, 돌, 흙등의 親和的 材料를 이용한 디자인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거주동 및 근린·지역사회의 경우에도 한국 古建築에서 볼 수 있는 기와·초가집 지붕의 처마곡선, Mass 등과 한국적 情趣를 느끼게 하는 식재·정원·정자·연못 등의 傳統的 디자인 요소와 자연친화적 요소를 도입한 空間의 연출은 노인들이 포근하고 情感이 가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이다.

<表 3> 노인의 心理·美性和 空間계획 方向

區分	老人室	單位住戶	居住棟	近隣, 地域社會
心理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간 프라이버시 ·室 사용자 관계고려 ·과거 生活方式 고려 ·심리적 안정감 유지 ·開放感 확보(답답함 제거) ·개인적 領域性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간 프라이버시 ·가족간 交流促進 ·여가공간 배려 ·자녀공간과의 分離 ·家族的 분위기 조성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隣棟間 프라이버시 (시선차단) ·세대간 교류촉진 (인거, 근거자녀) ·이웃간 交流促進 ·단지내 교류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성(사적/반공적/공적공간) ·空間性格 구분 (정적「소극적」공간/동적「적극적」공간) ·다양한 趣味活動 배려
美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화한 色感 ·전통적 재질감(한지·장판지 등) ·밝은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분위기 연출 (文樣·색감·질감등) ·한국적 가구,장식품 (죽자,액자등) 디자인, 배치 ·친화적 마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적 美感 충족 (기와지붕·처마곡선·Mass 등) ·傳統的 디자인 요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적 情趣(식재,정원,亭子,연못) ·자연친화적 공간구성

4. 社會·經濟性과 空間計劃

노인은 직장에서 隱退하고 건강 등의 이유로 行動半徑이 좁아져 자신의 주거를 중심으로 徒步圈인 근린지역내에서 生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의 社會性은 일반성인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老人住居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일정하고 기본적인 심리학적·사회학적 原理가 적용되는데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家族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斷折되는 것을 원치않으며, 새롭거나 이전과 다른 環境을 원치 않는다.¹⁸⁾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노인실 내에서의 배우자 유무, 손님접대, 同室 사용자 관계와 연령·건강 등에 따른 수직·수평적 실 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위주호에서의 자녀·친지·이웃·친구등과의 사회적 생활 및 자녀세대와의 동거·隣居·근거 관계에 따른 계획적 고려가 필요하다.

居住棟에서의 홀·복도·엘코브·식당·세탁장 등의 공용공간은 이웃간의 사교성·친밀성 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주거 단지는 노인들만 거주하는 노인 分離型과 젊은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統合型을 입지와 시설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고려하되 가능한 통합형을 지향함이 바람직하며, 단신노인과 부부세대용 주거동의 분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근린·지역사회와의 交流 및 조화, 사회적 교류시 행위 및 활동에 따른 大·中·小 집단별 공간배려, 충분한 여가시설 확보, 남녀간 性別 공간분리, 노인들의 적절한 여가생활 지도를 위한 공간배려 등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에 있어서는 상·중·하류계층 集團에 따라 가구·비품의 종류 및 규격등이 크게 다르므로 이에 따른 노인실 및 단위주호의 공간규모 및 배치계획과 주거의 耐久性·유지관리성·청소의 용이성이 고려되고 경제적인 마감재료가 선택되어야 한다. 주거단지가 크고 經濟的 계층이 다양한 경우, 유료·무료·실비시설을 구분배치하여야 하며, 노인작업장을 두어 소득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거나 채소재배장·동물사육장 등의 설치로 취미생활겸 消日거리와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며 특히, 저소득 階層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요구된다.

Ⅲ. 結 論

오늘날 우리나라 人口構造의 가장 큰 특징은 高齡化 현상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平均壽命은 크게 증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表 4> 노인의 社會·經濟性과 공간계획 方向

區分	老 人 室	單 位 住 戶	居 住 棟	近 隣, 地 域 社 會
社 會 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유무고려 손님 接待 연령, 건강 등에 따른 실배치(수평·수직) 同室 사용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親知와의 생활(자녀, 친인척 등) 이웃, 친구와의 사회 생활 자녀세대와의 同居, 隣居, 近居型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공간·시설 위치(홀, 복도, 식당, 洗濯 엘코브 등) 이웃간 親密性 제고 분리형-통합형 고려 단신세대·부부세대용 분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의 交流 주변지역과의 조화 大·中·小 집단별 공간 배려 충분한 餘暇施設 확보 남녀용 공간분리 여가생활 지도
經 濟 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家具, 비품(상류·중류·하류 階層 집단별 고려) 경제적 집단별 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재도구(보유용품) 주거의 耐久性 유지관리성 청소의 용이성 經濟的 마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有·無料, 실비 시설 구분배치 내구성, 유지관리성 경제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所得維持 방안(노인 작업장 설치) 채소재배·동물사육장 저소득계층 배려 作業領域·동작고려

醫學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延長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老齡人口 비율이 계속 증가됨으로서 우리는 이제 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향후 20여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결국 선진국처럼 高齡社會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머지않아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諸特性이 고려되고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住居環境을 계획하기 위한 方向을 고찰하였는 바 그 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老化의 진행에 따라 노인들은 점차적으로 운동 및 감각기능이 쇠퇴하여 각종 事故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安全性에 특히 유의해야 함은 물론 加齡과 함께 건강이 크게 약화되므로 그들의 위생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계획이 요구된다.

2) 노인은 점차 신체·정신적으로 虛弱해지고 障礙를 수반하게 되면서 일상생활 조차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自立的으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의 便利性和 快適성을 증진시키는 건축계획적 측면의 配慮가 필요하다.

3) 노인의 私生活이 보호되는 개인적 공간과 공간내에서의 領域性 및 심리적 안정감의 확보 그리고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마련 등의 心理的 특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그들이 오랜 세월동안 일정한 기후와 풍토,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느끼고 형성해온 전통적인 美感을 충족시키고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디자인이 要望된다.

4) 사회일선에서 隱退하고 행동반경이 축소된 노인의 社會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친지·친구·이웃 등과의 交流와 여가활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들은 직업이 없는 관계로 經濟的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의 유지관리성, 소득유지 방안, 상·중·하류 계층별 구분배

치 등의 住居環境 계획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考慮해야 한다.

노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각자의 人生行路를 걸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性格, 인간관계, 생활양식 등이 각자 다르게 形成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 그들이 처한 건강상태, 가족 구성, 경제력 등의 諸條件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住居環境 계획에 있어서 그들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諸特性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老人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要求에 부응하고 삶의 方式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多樣化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各自의 조건에 맞는 주거를 선택하여 餘生을 편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주

- 1) 統計廳, 95년도 人口住宅 總조사, 1997. 2.
- 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과 政策課題, 1997. 4.
- 3) 60세 이상의 老人夫婦 단 들이만 사는 家口數가 1995년 현재 전국에 '60대 부부가구'는 총 37만 7천 家口, '70세 이상 부부가구'는 21만2천 가구로 5년전에 비해 72.2%나 늘어나 총 58만9천 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高齡層중 혼자 사는 老人은 전국에 48만명으로 전체 老年層의 11.6%에 해당된다(통계청, 95년도 人口住宅 總조사, 1997. 2).
- 4) John Macsai, Housing, cond edi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2, p.354.
- 5) Earl W.Morris, Mary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1978, p.210.
- 6) 노인은 일반적으로 加齡과 함께 사회일선에서 은퇴하고 건강이 약화되는 등의 이유로 行動半徑이 좁아져 자신의 주거를 중심으로 한 近隣圈(도보생활이 가능한

- 거리) 내에서 生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의 住居環境이란 주거내에서의 生活은 물론 근린권내에서의 近隣生活까지 포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環境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 7) James C. Snyder & Anthony J. Catanese,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New York : McGrawHill Inc.,1979), p.53.
- 8) A. J. Kahn & S. B. Kammerman, Social Servi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Washington, D.C.:DHEW, 1976, p.247.
- 9) 許炳珮, 노인의 諸特性에 따른 주거환경 計劃因子에 관한 연구, 韓國住居學會誌, 제7권 제2호, 1996. 10., pp.79-89.
- 10) 선행연구에서 老人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特性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계획인자를 考察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함은 물론 각종 狀況으로부터 類推하여 살펴본다.
- 11) Schooler, K.(1980), Effect of environment on morale, The Gerontologist, 10, 194-197, 서승희·이경희, 住居移動이 노인의 生活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제16권 1호(통권21호), 한국노년학회, 1996. 6., p.71에서 재인용.
- 12) Anne Munley, Aging and Society, Renhart and Winston, New York, 1980, 崔信德·金鐘淑譯, 老人과社會, 考試研究社, 1983, P.237에서 재인용.
- 13) 朴泰煥, 老年層을 위한 計劃住居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學術發表論文集, 제14권 제1호, 1994.4., P.76.
- 14) 山部宏昭, 高齡化と住宅政策について, 高齡化社會の住宅, 一粒社, 1992, PP.11-13.
- 15) 노인에게 적합한 계단의 높이는 15-16cm 이고, 계단의 너비는 30-32cm 이며, 난간의 높이는 80-85cm(추정치)이다.
- 16) 小室豊允·菊澤康子, 老人と住居, 中央法規出版, 三友設計譯, 産業圖書, 1992, p.18.
- 17) Robert J. Obenland, Behavioral Factors for Elderly Housing Design, quoted in Carol B. Meeks, Housing, Englewood Cliffs:PrenticeHall, Inc., 1980, p.205.
- 18) W. Russel Parker, Housing for the Elderly, De Chiara & Callender, 'Time-Saver Standards for Building Types', 2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80), p.87.

參 考 文 獻

- 1) 朴泰煥, 노년층을 위한 計劃住居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學術발표논문집, 제14권 제1호, 1994. 4.
- 2) 서승희·이경희, 住居移動이 노인의 生活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제16권 1호(통권21호), 한국노년학회, 1996. 6.
- 3) 崔信德·金鐘淑譯, 老人과 社會, 考試研究社, 1983.
- 4) 統計廳, 95년도 人口住宅 총조사, 1997. 2.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新人口推計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과 政策課題, 1997.
- 6) 許炳珮, 노인의 諸特性에 따른 주거환경 計劃因子에 관한 연구, 韓國住居學會誌, 제7권 제2호, 1996. 10.
- 7) ———, 都市地域 노인을 위한 近隣生活 環境 계획요인에 관한 實證的 연구, 大韓 建築學會 論文集, 제76호, 1995. 2.
- 8) 山部宏昭, 高齡化と 住宅政策に ついて, 高齡化社會の住宅, 東都:一粒社, 1992.
- 9) 小室豊允·菊澤康子, 老人と住居, 中央法規出版, 三友設計譯, 産業圖書, 1992.
- 10) A. J. Kahn & S. B. Kammerman, Social Services in International

- Perspective, Washington, D.C.: DHEW, 1976.
- 11) Earl W. Morris, Mary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1978.
- 12) James C. Snyder & Anthony J. Catanese,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New York: McGraw-Hill Inc., 1979).
- 13) John Macsai, Housing, Seco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 14) Robert J. Obenland, Behavioral Factors for Elderly Housing Design, quoted in Carol B. Meeks, Housing,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0.
- 15) W. Russel Parker, Housing for the Elderly, De Chiara & Callender, 'TimeSaver Standards for Building Types', 2nd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1980).